서문

경멸적 무시와 도를 넘은 적대감, 오만한 묵살과 교육과정상의 미미한 채택, 선별적 이용과 선별적 검열, 이는 200년 전 트리어에서 출생한 사상가의 도전에 맞서 수년간 기득권 지식인이 취한 전략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21세기 세 번째 10년의 시작점에 있으며, 카를 마르크스의 진정한 사상이 오늘날처럼 화제가 되고 존경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한 가장 최근의 해인 2008년 이후, 마르크스는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를 오랫동안 잊히게 했던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의 예측과는 달리, 마르크스의 사상은 다시 한번 분석, 발전,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종종 '현실 사회주의'와 잘못 동일시되었다가 1989년 이후로는 퉁명스럽게 무시되었던 이 사상가에 관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폭넓은 독자를 보유한 권위 있는 일간지와 잡지는 마르크스를 매우 화제적이며 선견지명 있는 이론가로 묘사했다. 그는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대학 과정 및 국제적 학술대회의 주제가 되었다. 재인쇄하거나 새 판본으로 출간한 그의 저술이 서점 진열대에 다시 등장했고, 그의 저작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20년간의 침묵을 끝낸 후 점점 더 탄력을 얻었으며 때로는 중요하고 획기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7, 2018년에는 각각 『자본(Capital)』 출간 150주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과 관련된 전 세계의 수많은 계획 덕분에 '마르크스의 부활'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났다.

마르크스 전작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어 특히 가치 있는 것은 199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 전 작품에 대한 역사비평 판본인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Marx-Engels-Gesamtausgabe, $MEGA^2$)』의 출판 재개였다. 이미 28권

이 출간되었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다. 이 책에는 [『독일 이데올로기(The German Ideology)』와 같은] 마르크스 저작 일부의 새로운 판본, 1857년부터 1881년까지 『자본』의 모든 초고, 그가 생전에 주고받은 모든 서신, 그가 독서를 통해 발췌한 것과 이에 관한 의견을 담은 약 200권의 노트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노트에는 마르크스의 비판이론 작업이 담겨 있으며, 이는 마르크스 사상의 복잡한 여정과 그가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한 자료를 보여준다.

(다수가 독일어로만 이용 가능하며, 따라서 여전히 소규모 연구자 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렇게 귀중한 MEGA^2 판본은 수많은 비평가들 또는 자칭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제시해 온 인물과는 매우 다른 저자로서의 마르크스를 보여준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마르크스 자료 출판은 그의 저작에 관한 혁신적 해석과 함께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었고, 글로벌 규모에서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 갈등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검토한 그의 능력을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게 증명했다. 정치·경제·철학 사상의 위대한 고전적 학자 중에서 마르크스는, 21세기의 첫 수십 년 동안 인물평이 가장 많이 변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의 발전은, 변화된 정치적 상황과 함께 마르크스 사상 해석의 쇄신이 운명적으로 계속될 현상임을 시사한다. 최근의 출판물은 마르크스가 오늘날 정치적 의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많은 문제(이 중 일부는 마르크스 저작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과소평가되거나 심지어 무시되기까지 했다)를 깊게 연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문제 중에는 생태 문제, 이주, 민족주의 비판,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 젠더 해방, 기술의 해방 잠재력,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집단적 소유의 형태가 있다.

게다가 마르크스는 유럽 외부 사회에 관해 철저한 연구를 착수했고, 식민주의가 미치는 참화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또한 유럽적 맥락의 고유한 범주를 세계의 주변부 지역 분석에 사용하는 사상가들을 비판했다.

그는 현상 간의 필연적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했으며, 특히 1870년대 이론적으로 진전을 보인 이후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역사적 영역과 지정학적 영역을 가로질러 해석적 범주를 가져다 쓰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특정 학계에서 여전히 유행하는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모든 것은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베를린장벽이 붕괴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토록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던 도그마적·경제주의적·유럽중심주의적 사상가와는 매우 다른 마르크스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생산력 발전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시사하는 수많은 서술을 마르크스의 방대한 문헌 유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도래는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어떠한 사상도 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사실 마르크스 사상에서 사회변혁의 가능성은 노동계급에게, 그리고 투쟁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마르크스 사후에 발생한 변화에 비추어 재고해 보면, 그의 사상은 자본주의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도 해명한다.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는, 인류가 정의 및 공평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법적 기준으로 보호받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완성된 민주주의에서 사는, 그러한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인류는 상품생산 및 타인을 위한 이윤 생산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사회의 더 고차원적 형태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을 촉진해야만 한다. 다수의 '공산주의 국가'가 선전을 통해 신봉했듯 공산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시하는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사회를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으로 정의했다는 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담고 있는 이 책은 21세기 사회주의의

지배적 흐름에서 익숙한 것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마르크스를 제시한다. 이 책의 이중적 목표는 비판적·혁신적 방식으로 마르크스 사상의 고전적 주제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특정 문제를 보다 심층적 분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작업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마르크스의 저술을 아직 진지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 모두가 마르크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의 우리가, 150년 전 마르크스가 쓴 것에 단순히 의존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분석이 지닌 내용과 명료성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경시해서도, 자본주의 대안 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고에 있어서 그가 제공한 비판적 무기를 취하는 데 실패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마르셀로 무스토